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서사교육의 내용

선주원*

〈차 례〉

- I. 서 론
- II. 타자의 존재 의미와 서사적 기능 유형
- III.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삶의 현상 인식
- IV.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교육의 내용
- V. 결 론

I. 서 론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물 중심 서사교육은 일반적으로 주인공을 중심축에 놓고 주인공의 성격과 행위에 의해서만 플롯을 논의하고, 주인공과 관련된 상황들에 의해 주제를 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인물 중심 서사교육이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들의 삶과 그들의 상호관련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작중인물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해에 의해 서사 텍스트의 의미가 온전하게 교육되는 서사교육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공에만 초점을 둔 서사교육은 작중인물간의 중층적인 관계에 의해 형상화되는 플롯의 다층성이나 열린 결말 등과 같은 서사 담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seonjw@gnue.ac.kr.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물간의 관계가 배타적인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서사 텍스트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서사교육이 특정 인물 중심주의¹⁾에서 벗어나 삶의 다층적인 양상들을 현실화시키고 있는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²⁾와 그들의 서사적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는 한 인물과 타자가 타자성을 지향하면서 타자의 시선이 갖는 잉여성에 의해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인식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인물에 대한 타자는 복수이며, 타자들간에도 타자적 관계가 성립한다.

그렇다고 해서 작중인물간의 관계가 특정 인물에게만 집중되거나 단층적인 플롯을 가진 텍스트들을 서사교육의 장에서 제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특정 인물 중심주의가 아닌, 타자적 관계에 의해 작중인물들의 삶과 의식이 해명되고, 이에 의해 학습독자가 삶의 다층성을 이해할 수 있게 서사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습독자가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를 해명하고 삶의 다층성을 이해하는 것이 서사교육에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사 텍스트의 의미는 작중인물간의 다층적이고 타자적인 관계 형성에 의해서 생겨난다. 서사 텍스트의 의미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들의 관점이나 태도를 흡수하는 데서가 아니라, 작중인물들의 다양한 관점

1) 이 글에서 의미하는 특정 인물 중심주의는 소설 텍스트를 이해하고 분석할 때, 특정 인물에만 주의를 집중시켜 여타의 인물들을 한 인물의 관점에서만 종속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경향이다.

2) 이 글에서 의미하는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는 한 인물의 의식이나 행동이 다른 인물들의 의식과 행동에 의해 일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닌, 작중인물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목소리와 의식을 교환하면서 생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이 구성되는 존재를 지향하는 관계이다. 이 관계는 한 인물과 다른 인물의 관계를 종속적인 것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물들의 관계가 타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인물간의 관계가 타자적이기 위해서는 그들간의 관계가 상호 영향을 주면서, 각자의 의식에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인물간의 관계가 타자적 관계이기 위해서는 타자의 시선이 갖는 잉여성에 의해 한 인물이 자신의 존재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이에 의해 자신의 존재 가치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과 태도가 교섭하는 데서 구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독자가 서사 텍스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의해 형상화된 텍스트의 세계는 삶의 다층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다층성은 실제 삶과의 상동성을 갖는다. 따라서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삶의 다층성에 대한 이해에 의해, 학습독자는 실제 삶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에 의해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받는다.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학습독자는 텍스트의 세계와 실제 삶의 상동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삶의 다층성을 인식하는 서사 읽기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학습독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타자, 세계, 삶을 이해하고, 그 관계망을 조절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서사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독자는 서사로서의 삶의 현상을 보다 잘 이해하면서, 타자와 세계의 관계망을 새로이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에 의해, 이 글은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타자의 서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서사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구안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 글이 이러한 연구 목적을 갖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작중인물간의 관계는 특정 인물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인물이 아닌 다른 인물들의 관점이나 시야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서사 텍스트의 의미는 여러 인물들의 목소리가 혼성되고 상호작용 하는 가운데 생성되며, 이 과정에서 타자들은 서사의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가 된다.

둘째, 서사 읽기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다성적인 목소리가 중첩된 것을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 양상은 어떤 하나의 패턴을 지향할 수 없는 ‘일리(—理) 있음’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 읽기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특정 인물의 서사적 기능뿐만

아니라, 타자들이 특정 인물에게 하는 서사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타자들이 특정 인물에게 부여하는 서사적 기능은 학습독자가 서사를 보다 심화시켜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셋째, 지금까지 주인공에만 초점을 두어 논의되어 온 서사교육을 지양하고,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둌으로써 서사교육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학교 현장에서의 서사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이 갖는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사교육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첫째, 작중인물의 서사적 기능을 어떤 한 인물의 관점이 아닌 여러 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에 의해 살펴보고, 이에 의해 서사교육의 내용을 구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 다르다. 이는 선주원(2003)의 논의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선주원의 연구는 소설교육에서 타자성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를 활용한 소설교육의 틀을 구안하고 있다.³⁾ 특히 논쟁하기 전략을 통해 타자성의 관점에 의한 소설교육의 실재를 논의했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작중인물의 서사적 기능을 활용한 소설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특정 인물이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구성적 존재가 되게 하는 데 타자의 존재성이 있다는 관점 아래,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좌절시키는 타자의 서사적 기능을 학습독자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와는 다르다. 이는 임경순(2003)의 논의와 비교해보면 확연해진다. 임경순은 서사교육에서의 주체를 자아 정체성과 관련지어 논의하면서,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주체의 자아 정체성을 해명한 바 있다⁴⁾. 그러나 그의 논의는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이 타자와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그리고 작중인물들에 대한 이해가 학습독자의 주체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

3) 선주원(2003), 「타자성의 관점에 의한 소설교육」,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국어문교육』제12집.

4) 임경순(2003),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109-124쪽.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기존의 논의들과 이러한 차별성을 갖는 이 글은 서정인의 〈나주댁〉, 〈산〉, 〈가을 비〉, 〈남문통〉, 〈우리 동네〉 등을 논의 대상 텍스트로 삼는다. 이 소설들을 대상 텍스트로 삼은 것은, 이 소설들이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를 타자의 시선이 갖는 시선의 잉여성에 구체화하면서, 한 인물이 타자의 의식이나 사고방식과 내적 대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삶의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삶이란 타자의 존재에 의해 그 의미가 구성될 수 있는 것임을 서사적 행위를 통해 구현하면서, 서사에서 타자의 존재가 갖는 중요성을 전경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서사 텍스트의 의미를 다성적이게 하는 타자의 타자성에 의해, 학습독자가 허구적 삶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아가 실제 삶에서 타자가 갖는 존재 의미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삶의 다층성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II. 타자의 존재 의미와 서사적 기능 유형

서사 텍스트에서 특정 인물의 행위나 의식 내지 사건은 흔히 다른 인물들의 욕망과 밀접하게 관련되면서, 사회·상징적인 의미 연관을 갖는다.⁵⁾ 작중인물들은 서사 텍스트 내에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특별한 형태의 관계를 상호간에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 텍스트에서 한 인물과 타자의 관계성은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한 인물과 다른 인물들은 상호간에 시선의 잉여성을 갖고서 내적 대화를 나누며, 이 내적 대화에 의해 각자의 존재성을 구성해간다. 이로 인해 한 인물의 타자의 존재에 의해 그 존재성이 영향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한 인물로서의 주체가 타자로서의 다른 인물과 맺는 관계는, 서로간의 본질적인

5) F. Jameson(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Cornell University Press, pp.173-175.

차이에 의해 서로의 응답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는 존재성 구성에 기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서사 텍스트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체들간의 대화 양상을 타자의 타자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타자의 타자성으로 서사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텍스트의 전체 의미가 새롭게 창조되고, 풍요로운 삶의 사건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자의 시선이 갖는 잉여성에 의해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한 인물은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⁶⁾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타자의 시선이 갖는 시선의 잉여성에 의해 한 인물은 실제 삶의 본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 삶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서사 상황에서, 한 인물로 하여금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하게 하는 타자의 존재와 그의 서사적 기능은, 독자가 한 인물의 행위와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단서가 될 뿐만 아니라 서사 텍스트 전체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서사 텍스트에서 타자의 존재는 한 인물이 자신의 삶의 위치와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독자가 인간 삶의 다층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타자가 특정 인물로 하여금 존재론적 욕구를 추구하게 하는 존재라는 개념은 바흐친의 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흐친은 창조적 주체로서 인간 개념의 성립에 타자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점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타자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 자체 외적인 형성의 순간들을 이해하고 고려하려고 노력한다. (중략) 한마디로 말해서, 늘 그리고 강렬하게 우리는 다른 인간들의 의식의 수평 속에 나타나 있는 우리의 삶의 반영을 감시하며 그 반영들을 파악한다.⁷⁾

6) 이 글에서 의미하는 존재론적 욕구는 주체가 보다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타자의 의식이나 시선을 빌리고, 이에 의해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욕구이다.

7) 바흐친, 『심미적 행위에 있어서 작가와 주인공』, 김육동 편(1990),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247-248쪽.

바흐친의 이러한 말은 주체가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선이 아닌 타자의 시선이 필요하며, 타자의 시선에 의해 주체는 새로운 삶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주체의 세계 인식이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서사로서의 삶에서 타자의 존재가 주체에게는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서사 속에서 타자는 주체로 하여금 보다 나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그렇지 못한 인물이다. 따라서 타자의 담론은 명령과 금지, 욕망과 기대, 의무와 가치 판단의 체계를 갖는데, 그 타자의 담론 내지 타자의 자리에서 주체는 자아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주체는 사물 세계에 대한 지각의 한계성을 갖는데, 이 한계성 때문에 주체는 늘 사물의 일부분만을 지각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 의식은 지각되지 않는 부분까지 종합하여 대상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는 타자의 존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주체가 지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각할 수 있는 타자의 존재에 의해 주체의 의식은 하나의 전체화된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즉, 주체는 타자를 통해서 전체화된 세계의 상관자로서 의식을 구성하면서,⁸⁾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하게 된다.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아를 확인하고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에서 주체는 새로 구성되는 ‘나’가 된다. 그러나 이때의 구성은 타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차이에 의해 주체가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후설에 의하면, 주체가 타자를 경험하는 과정은 ‘타자의 존재 지각→타자와의 결합→타자와의 차이 인식’인데⁹⁾, 이 과정에서 타자는 주체와 자신을 차이 나게 하는 비대칭적 속성에 의해 주체가 구성적 존재가 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주체는 타자를 통해 심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전환, 즉 존재론적 욕구 충족을 하게 된다. 주체가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성적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타자가 하는 기능은, 주체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8) 고영아(1997), 「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본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쪽.

9) E.Husserl, 이종훈 역(1993), 『데카르트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179-186쪽 참조.

기능, 촉발시키는 기능, 충족시키는 기능 등을 한다.¹⁰⁾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타자가 하는 기능에 의해, 주체는 삶의 현상을 이해하고 구성하게 된다. 바흐친식으로 말하자면, 삶이란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며, 주체는 타자의 눈을 통해서만 자신의 삶과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삶에서 타자의 존재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으로, 주체의 존재론적 욕구를 규정하고 주체가 '세계-내-존재'가 되게 한다. 특히 허구적 서사는 합리적 언어의 동일성에 종속되지 않는 타자적 진리를 표현하여, 어떤 인물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도르노에 의하면, 허구적 서사는 타자성을 배제하지 않는 진정한 인식이 가능한 양식이다¹¹⁾. 따라서 독자가 허구적 서사에 형상화된 작중인물간의 관계를 타자성이라는 틀에 의해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 공받는다면, 서사로서의 실제 삶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사로서의 실제 삶이 갖는 다층적인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허구적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독자가 실제 삶의 다층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염상섭의 《삼대》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자.

10) 서사 텍스트에서 한 인물과 타자의 관계를 한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과 관련시키지 않고, 타자에 대한 한 인물의 태도에 초점을 두어 부정적 타자, 긍정적 타자, 지양적 타자, 경쟁적 타자 등으로 볼 수도 있다. (우찬제(1998),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연구: 염상섭의 《삼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제8집.)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한 인물이 타자의 존재로 인해 그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구성적 존재'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인물과 타자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 관계로서, 상호간의 존재성과 관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인물과 타자의 관계를 존재론적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관계 하위 유형은 욕구 생성 유형, 욕구 충족 유형, 욕구 좌절 유형, 욕구 변형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욕구 충족 유형과 좌절 유형만을 다룸을 밝힌다.

11) 문기호(2000), 「타자성의 미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아도르노의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4-48쪽 참조.

염상섭의 《삼대》에서 김병화는 홍경애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폐쇄된 이념성에서 벗어나 점차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간다. 즉, 그는 홍경애를 통해 이전의 융통성 없는 사회주의자의 삶에서 벗어나 타자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하는 삶으로 전환한다. 홍경애와의 관계를 통해 변화된 병화의 삶은 덕기와의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덕기에 대해 병화는 이전에는 서로가 자기 갈 길로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부르주아지(‘금고지기’)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덕기의 노력을 인정한다. 즉, 덕기의 부르주아적 한계를 말하면서도 또한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의 ‘숨은 고통’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처럼 홍경애, 덕기 등과 같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병화는 융통성 있는 사회주의자로 새롭게 구성되어 폐쇄된 관념에서 벗어나 현실적 사고를 하는 구성적 존재가 된다.

타자와의 관계에 의해 구성적 존재가 되는 김병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학습독자는 소설 속의 삶이란 작중인물들의 이념이 상호 침투하여 구성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병화가 새롭게 구성한 그의 삶이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비평하면서, 이것이 실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설 속의 삶과 실제 삶의 상동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삶의 다층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에 의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소설 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독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서사 읽기를 통해 구성하게 되는 의미는, 학습독자가 서사 텍스트를 자기 삶과 관련지어 읽는 과정에 따라 ‘삶의 현상 이해’ 차원, ‘자기 삶 성찰’ 차원,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 마련’의 차원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²⁾ ‘삶의 현상 이해’ 차원은 학습독자가 서사 텍스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흥미를 가지면서, 텍스트에 형상화된 삶의 다층적 현상들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특히 작중인물간의 관계가 특정 인물의 의식과 행동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아니라, 상호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물간의 교섭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자적인 것임을 확

12) 이 차원들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줄고(2002) 참조.

인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삶 성찰'의 차원은 학습독자가 서사 텍스트에 대한 초기 이해와 해석 능력을 촉진시켜 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개인적 반응을 하고, 이에 의해 허구적 삶과 실제 삶을 대비시켜 실제 삶에 대한 심화된 이해에 이르는 단계이다. 또한 자기를 둘러싼 세계, 타자 등에 대한 이해를 하고, 이에 의해 자기 삶에 대한 성찰을 하는 단계이다. 끝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 마련'의 차원에서 학습독자는 서사 텍스트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삶에 대한 성찰을 하고, 이에 의해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을 모색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독자는 허구적 삶을 상상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의해 미래의 삶에 대한 비전을 상상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는 상상력을 세련시킨다. 그러면 서정인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들의 서사적 기능을 학습독자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삶의 현상 인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III.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삶의 현상 인식

바흐친에 의하면, 서사 주체는 사건, 즉 행동으로만 의식되는데, 주체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의 의미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면서 세계에 참여하여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바꾸어 나간다. 대상으로서의 세계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내리는 주체의 의식은 움직이고 활동하며 행동하는 살아 있는 것이다¹³⁾. 이로 인해 주체의 의식은 가치 평가를 하면서도 '참여하는 사유'를 동반하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를 지향하면서 두 개의 목소리를 갖는다. 이러한 의식을 갖는 두 개의 목소리는 서로 수렴되거나 일치하지 않는다. 주체는 자신과 타자(대상화된 주체 자신을 포함하여)¹⁴⁾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바꿀 수 없는 데서 생기는 상호주관적인 공간에 의해

13) 이득재(1996), 「차이와 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90-92쪽.

14) 일정한 거리가 주어진 자기 자신도 타자로 볼 수 있다.

타자성을 갖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공간에 시선의 잉여분이 쌓여 있다. 시선의 잉여분은 주체의 지평과 타자의 환경간의 차이이다. 주체가 볼 수 있는 것과 타자가 볼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시선의 잉여분인데, 주체와 타자, 주체와 세계 사이의 이러한 차이에 의해 양자의 만남은 수렴되지 않고 발산된다. 그 결과 주체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지평과 타자가 주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환경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주체의 지평과 타자의 환경간의 차이는 사건으로서의 존재를 풍요롭게 하고 생산적으로 만든다. 주체와 타자간의 이러한 서사적 관계를 서정인의 소설을 통해 확인해 보자.

서정인 소설 속의 인물들은 세계 인식의 다양성을 긍정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이 ‘거리감’이 없다면 작중인물들은 다양한 삶의 양상들을 인식할 수 없으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 자신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취하게 됨으로써 인물들은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삶의 모순들을 통찰할 수 있다. 서정인의 소설들이 일상적인 삶을 그리면서도 단순한 세태묘사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인물들이 이러한 자기반성을 견지하면서 세계와 대화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중인물들은 이러한 성실한 자기반성을 통해서 소시민적 자기 연민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¹⁵⁾ 그런데 작중 인물들이 이러한 자기반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자는 작중인물이 세계와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서사 텍스트에서 주체와 타자간의 서사적 관계는 타자성의 관점에 의해 존재론적 관계에서 논의할 수 있다. 타자성의 관점에 의하면, 주체와 타자의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의미 있게 해 주는 상호 보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호 보완적인 존재로서 주체와 타자의 서사적 관계는 주체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와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

15) 윤혜경(1999), 「서정인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3쪽.

시키는 타자'로 나뉠 수 있다.¹⁶⁾

1.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

작중인물은 텍스트 내에서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세계,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고, 이에 의해 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는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특정 인물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는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타자의 존재는 부정적이거나 지양적인 것일 수 있다. 이때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에 대해 작중인물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좌절된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기반성을 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반성을 통해 작중인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리'두기를 하게 되고, 이에 의해 자신을 새로이 구성하는 존재가 되어간다. 작중인물이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반성을 하는 모습은 서정인의 소설 〈우리 동네〉에 형상화된 작중인물 '경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에서 경찰은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 타자들에 비해 결코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어떤 인물도 다른 인물을 지도하고 탄핵할 만한 권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조금씩 상처와 구린 데가 있고, 착각이 있는 그런 존재들로서,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경찰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우리 동네에서 "제일 짐작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를 존경했었다. 특히 어렸을 때는 그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랬는데, 언제부터서인지 그를 전혀 존경하지 않게 되었다. 그것은 반드시 그가 아편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언제쯤이었

16) 학습독자들이 타자의 서사적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찾기 위해서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하이데거가 말한 '세계-내-존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환적 세계에서 주체와 타자는 그들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 여부에 의해 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는지, 또는 무슨 일이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지만, 우연한 일로 그가 나보다 별로 나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알고 있었다. 추잡하고, 비열하고, 교만하고,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소심한 놈이었다. 그러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존경할 수 없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나는 세상이 추악하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나이를 먹었던 사람들이 그 정을 알면서도, 딱 덮어놓고 턱수염이나 만지작거리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세했었던 것에 대하여 노여움과 역겨움과 우스꽝스러움을 한꺼번에 느꼈다.¹⁷⁾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은 세상이 추악하다는 것을 발견해 가면서, 이러한 세상에 동화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경찰이 우리 동네의 사람들을 모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즉, 자기 주변의 타자들이 보다 나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나' 역시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타자들과 동화되기를 거부하면서, 자신을 타자화시켜 솔직한 성찰을 행한다. 이 성찰은 경찰이 '기성'이를 자기와 비교하면서, '기성'이가 자기보다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촉발된다.

나는 어머니에게 자식을 칭찬하는 빈말로가 아니라 참마로, 나 같은 놈은 열 번 죽었다 깨어나도 기성이 발뺌을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하고, 기성이를 볼 때마다 죄지는 사람 같은 기분이 들고 부끄러운 생각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그건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성이는 술만 마시면 경찰이 형이 부럽다고 말하고, 그리고 자기는 경찰이 형을 따라가려면 맨발 벗고 가도 못 따라간다고 꾸념을 하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내가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썰렁해졌다. 그리고 그 찬기에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 같았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녀는 자기 이들이 얼마나 포악하며, 얼마나 지독한 도둑놈인가를 말하고 있었

17) 서정인(1996), 『우리 동네』, 『강』, 문학과지성사, 205-206쪽. 이하 인용 쪽수만 밝힘.

다.(<우리 동네>, 209쪽)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경찰이와 기성이는 자신들이 환멸로 가득 찬 일상을 사는 평범한 존재이기에, 타자를 통해 환멸로 가득 찬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존재론적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욕망은 모두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란 의식, 즉 타자들이 자신의 존재론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의식에 의해 무너지면서, 그들은 서로가 다른 인물을 비판하고 지도할 권리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러기에 경찰은 기성이가 자기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인물이란 의식을 하자 “가슴이 썰렁해졌다. 그리고 그 찬기에 온몸이 싸늘해지는 것 같”은 느낌에 젖는다. 이 느낌은 일상적 삶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지양적 존재로서의 타자와 자신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경찰은 기성이나 동네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론적 욕망을 성취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존재들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을 때, 학습독자는 경찰의 존재론적 욕망이 그 스스로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다층적인 관계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성되기에, 올바른 서사 읽기는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허구적 서사에 형상화된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 읽기는 궁극적으로 학습독자 자신의 실제 삶이 갖는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로 연결되어야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정인의 <산>도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의 존재에 의해 특정 인물이 삶의 현상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산>의 여자 주인공은 자신을 키워준 양부에게 강간을 당한 후, 낙도에 부임하는 실폐자인 건오¹⁸⁾와 덕산에서 아무 조건 없이 하루 밤을 보낸다. 그녀와 건오는 모두 초라한 소도시나 시골 마을에서 만날 수 있는 인물로서 세상의 중심

18) 자기 포레들은 도시에 발령받았는데 자기 혼자만 낙도에 발령받았다는 자책감에 건오가 시달린다는 점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으로부터 밀려나 있고, 좌절된 꿈을 가슴에 묻고 그럭저럭 현실을 견뎌내는 인물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기회주의적이고 세상의 중심을 향해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타자들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갖고, 이러한 타자들이 자신들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인식한다. 이러한 인식은 항주중학교의 교감에 대한 건오의 의식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교감은 교장과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마흔을 갓 넘긴 사람이었는데, 육지에서 평교사로 있다가 진급이 됨과 동시에 건오가 오기 두 달 전에 섬으로 왔었다. 그는 대단한 활동가였다. 항주중학에서 설립 이래 오 년 동안 근무해온 교무주임은 교장의 무사안일주의에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교감은 그 불평을 유발할 기회를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다. 그는 교장이 무능하다면 그 무능을 비웃을수록 자기가 유능해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중략) 그는 야심이 많았고, 그 자신이 종종 떨어뜨리는 암시에 의하면 그는 언젠가는 물으로 올라갈 것이 확실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 국민학교에서 경력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건오는 그가 싫었다.¹⁹⁾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교감은 야심가이고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를 쓴다. 이런 교감의 모습은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 그럭저럭 현실을 견뎌내고 있는 건오에게는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로 비춰진다. 건오의 입장에서 볼 때, 야심가이며 언젠가 물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교감의 존재는 타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기보다는 타자를 짓밟고 일어서려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교감이 부정적 존재자로서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것은 ‘그녀’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녀’ 역시 실패하고 쓸쓸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야심가이자 자신의 삶을 짓밟아버린 교감에 의해 존재론적 욕구가 좌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석 달 전까지는 물의 어느 국민학교의 철없는 한 교사였었다. 그때 그녀가 하숙을 했던 곳이 바로 문교감의 집이었다. 그는 그때는 교감이 아니라 그녀의 학교와 같은 시에 있는 중학교의 평교사였었다. 어느 날 밤, 아파

19) 서정인(1996), 『산, 『강』』, 문학과지성사, 226-227쪽. 이하 인용 쪽수만 밝힘.

도 시내 전 국민학교 종합경기대회의 예행 연습 때문에 그녀는 밥을 먹고 나자 녹아떨어졌다. 자다가 숨이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 문선생이 배 위에 올라타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문선생은 보통 남이 아니었다. 그녀의 국민학교 적 은사였다. (중략) 그녀는 그의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쳤고 그가 얻어준 장학금으로 교대를 졸업했었다. 그녀는 짝소리도 못 하고 당했다. 그가 일을 마치고 방을 나가자 그녀는 베갯머리에 얼굴을 묻고 소리죽여 흐느꼈다. 첫여름의 무더운 밤에 있었던 일이었다. (<산>, 235)

위의 예문은 문교감이 원래는 그녀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던 타자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교감은 그녀의 성을 짓밟아버림으로써 그녀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가 된다. 그녀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서 그녀가 국민학교 교사가 되게 했던 문교감이, 그녀의 순결한 처녀성을 빼앗는 부정적 타자가 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타자의 존재성과 삶의 증충성을 보여준다.

문선생은 그녀에게 관계의 계속을 요구했다. 그가 그녀를 잘못 보았음이 분명했다. 그가 첫번째 성공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가 그녀의 방으로 두번째 침입해 들어왔을 때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부인은 그때 집에 없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딸 하나를 낳고 단산을 한 문선생의 부인은 그녀를 친딸처럼 사랑했었다. 그 부인은 사건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대신에 단호히 남편과 헤어졌다. 그 부인을 생각하면 그녀는 수치심 때문에 숨이 막혔다. 그녀도 그 부인을 부모처럼 좋아했었다.

(<산>, 235-236)

그녀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킨 문선생의 행위는 결국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가정의 파탄까지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선생의 행위가 보편적 인류이라는 인간 삶의 조건에서 벗어나, 타자들의 삶과 의식에 극도의 혐오감을 주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이로 인해 문선생의 존재성은 그의 아내나 그녀(초등학교 교사였던 제자)에게 처음에는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었지만, 점차 타자의 삶을 뿌리 채

흔들리게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변모한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을 때, 학습독자는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부정적 타자가 존재하며, 그의 존재는 삶을 '그렇고 그런 것'이 되게 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는 타자에 대한 지양과 극복이 진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양이 됨을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학습독자는 우선적으로 작중인물들의 타자적 관계에 주목하여 서사 텍스트를 다층적으로 읽고, 이를 자신의 실제 삶과 관련지을 필요가 있다. 서사 읽기 과정에서 학습독자는 필수적으로 다층적인 삶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자기 성찰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나주택>에서 서술자인 윤선생은 다른 인물들의 내면을 넘나들면서, 다른 인물들이 지닌 속물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소설에서 비판의 초점이 되는 교장의 이중적인 삶을 그의 애국 연설이 지닌 공허함과 위선을 통해 보여준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교과서 배분 이윤' 말고는 흥미가 없는 교사들의 삶을 통해, 윤선생은 이러한 타자들이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키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부정적 타자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구 삼만의 벽지에서 교편을 잡는 것을 "순수한 의미의 봉사"로 믿고 싶어하는 윤선생의 의식은 서울에서 지방으로 "떨려오는" 사람은 일종의 낙오자라 여기는 교장의 의식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는 궁극적으로 윤선생('나')이 타자들을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킨 존재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타자들과 어떠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을 때 학습독자는 "인간은 모두 소심하고 이기적이고 비열하다"는 윤선생의 의식이 갖는 허구성을 인식하면서, 삶이 본질적으로 타자와의 관계 형성에 의해 영위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위선적인 윤선생의 삶의 태도가 학습독자 자신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이를 지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이 태도는 윤리적 성찰에 의해 가능할 것인데, 윤리적 성찰을 지향하는 서사 읽기는 서사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주체 형성'을 위한 서사교육

의 토대가 될 것이다.

2. 존재론적 욕구를 촉발/충족시키는 타자

서사 텍스트에서 특정 인물은 타자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반성을 수행하면서 삶을 새로이 구성하는 구성적 존재가 되는데, 이때 타자가 하는 기능은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를 촉발/충족시키는 것일 수 있다.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를 촉발/충족시키는 타자는 특정 인물에게 긍정적 의미를 제공하며 삶의 활력을 제공한다. 이러한 타자의 존재는 서정인의 소설 〈가을 비〉에서 확인된다.

가난한 농부의 셋째 딸로 태어나 “입지전적인 의지와 투쟁”을 통해 간호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여주인공은 도시의 편리와 사치를 누리며 새로운 삶을 꿈꾼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병원 주인인 의사와 결혼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스무 살 내과 간호장교 시절에 만난 옛 애인이 찾아온다. 그러나 옛날 애인은 외과의사는 아니어도 “무엇인가가 될” 줄 알았던 그녀의 기대와는 달리, 하나에 이삼백 원짜리 월부다리미 장수가 되어 허름한 여관에 나타난다. 이 월부다리미 장수의 출현은 그녀가 기대하던 모든 삶을 순식간에 뒤흔들어 버린다. 그녀 스스로 거부하고 싶었던 자신의 모습을 월부다리미 장수를 통해 보아버렸기 때문이다.²⁰⁾ “한 폐기의 땅에 여섯 식구의 목숨을 부쳐왔던 사람들은 역시 다리미 월부장수가 제격인가!”라는 그녀의 한탄은 표면적으로는 좌절과 자포자기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한탄은 그녀가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해준다. 옛 애인으로 인해 그녀는 잃어버린 옛날의 존재론적 욕구, 즉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새삼 인식하고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녀는 “빌려 입은 남의 새 옷을 벗어버리고 몸에 맞는 제 헌 옷”을 찾아 입으면서, 병원의 환자들 얼굴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게 된다.

20) 윤혜경(1999), 앞의 논문, 26쪽.

흰 벽이 눈에 들어왔다. 뒤틀리고 이지러진 여러 개의 얼굴들이 하나가 되어 커다랗게 떠올랐다. 그것은 이씨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병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이 세상의 공기의 무게가 얼마나 가혹했길래 저렇게도 형편없이 찌들어져버렸을까. 숨통을 줄리기라도 한 듯이 그 얼굴들 아래에서 버둥대며 버르적거리고 있을, 그러다가 머지않아 기운이 다하면 축 늘어져버릴 수많은 팔들과 다리들. 그녀는 소름이 끼쳤다. 그 얼굴을 해파리처럼 흐느적거리면서 위로 조금씩 솟아올랐다. 그녀는 문득 그 속에 그녀 자신의 얼굴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았다.²¹⁾

자신의 얼굴을 환자들 얼굴에서 발견하면서, 그녀는 부와 편리, 사치를 꿈꾸며 달려온 자신의 삶과 명백한 거리를 취하게 된다. 이는 그녀가 피하려 했었던 것들, 즉 월부 다리미 장수인 옛 애인이나 가난한 삶이나 환자들의 모습 같은 소외된 타자들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들에 의해 잊고 있었던 존재론적 욕구를 다시 추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녀는 실패한 자들의 초조와 불안과 비열함, 성공한 자들의 이기주의, 탐욕 등을 선명하게 대비시키면서, 삶의 중심에서 소외된 자들의 트라우마(trauma)를 꺼안고자 한다. 이는 그녀가 소외받은 자들에 의해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새롭게 추구하면서, 건전한 의미에서의 소시민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식이야말로 가혹한 “세상의 공기의 무게”에 한껏 짓눌려버린 개인의 비극을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을 때, 학습독자는 윤간호사가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편이 아닌, 가난하고 쓸쓸하고 소외받는 타자들(환자 이씨, 옛 애인,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꺼안으면서 그들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그녀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난 타자들을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존재들로 인식하면서, 그들을 통한 자기반성을 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다. 이 인식에 의해 학습독자는 삶이란 소외 받는 타자들을 진정으로 꺼안는 의식에 의해 건강한 생명력을

21) 서정인(1996), 「가을 비」, 『강』, 문학과지성사, 187-188쪽.

얻을 수 있고, 이에 의해 존재론적 욕구도 충족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와 삶의 의미를 타자를 통해 반추하는 작중인물의 모습은 〈남문통〉에서 건강한 생명력으로 드러난다. 〈남문통〉의 작중 인물 경자는 싸구려 대폿집 여주인으로서, 그녀의 남편은 도박꾼이다. 그녀의 남편은 도박 밀전을 그녀에게서 뜯어낸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녀는 성안의 비루한 공간인 '남문통'에서 건강한 생명력을 느끼며, 자신이 거느리는 어린 작부들을 포용한다.

어쨌든 달라는 액수에서 천 원을 깎았다고 하는 위안이 남편이 나가버리자 허무해진다. (중략)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는데 까짓 몇 천원쯤... 그러나 그 몇 천원을 벌기 위해서 아직 빠다귀도 채 굶어지지 않은 어린 가시내들이 얼마나 많은 독한 술을 억지로 마셔야 되고, 주물리고 토하고 노래를 부르고, 쓰러지고...22)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경자는 자신의 의식 안에 들어와 있는 어린 작부들을 긍정적 타자로 여기면서, 그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한다. 이 배려와 이해에 의해 그녀는 삶에 대한 용기와 힘을 얻는다. 그녀 자신이 어린 작부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소외된 존재라는 인식 속에,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긍정적 타자들인 어린 작부들에 의해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경자가 형사 덕팔에게 남편이 노름을 벌이고 있는 장소를 알려주는 행위는 단지 일시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라 돈 몇 천원을 벌기 위해 어린 작부들이 겪어야 하는 힘겨움, 즉 트라우마(traua)에 대한 이해와 껴안음 때문이다. 어린 작부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껴안음에 의해 경자는 자신의 삶을 새로이 구성하는 구성적 존재가 된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을 때, 학습독자는 어린 작부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경자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구성적

22) 서정인(1996), 「남문통」, 『강』, 문학파지성사, 275쪽.

인 것임을 알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해 학습독자는 경자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어린 작부들을 포용하고, 부정적 타자인 남편이 도박판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형사에게 토설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 학습독자는 인간 주체가 본질적으로 트라우마를 간직한 존재로서, 타자의 시선과 의식에 의해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성적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다.

소외받은 자들을 긍정적 타자로 여기면서, 그들로부터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은 <산>에서 건오와 그녀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이 소설에서 전직 교사인 그녀는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킨 문교감에 의해 삶이 뿌리 뽑힌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건오에게는 긍정적 타자가 된다.

그녀가 그를 훔쳐 쳐다보았다. 그는 또 가슴이 섬뜩했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다.(중략) 커다란 눈과 하얀 살갗, 그리고 똑 곧은 코, 이런 것들이 대개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었다.(중략) 그는 그녀의 몸매에 육감적인 아름다움이 없음을 보았다.(중략) 그녀는 문득 무엇에 놀라기라도 한 듯 그를 쳐다보곤 했다. 그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인지도 몰랐다. 시선이 부딪칠 때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한쪽 눈을 감아보인다가나 어슬렁어슬렁 옆으로 다가가서 뉘 빠진 수작을 붙인다가나 하기는커녕,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만도 그에게는 힘에 겨웠다.

(〈산〉, 218-219)

위의 예문에서 건오는 밝지만 아련한 아픔으로 다가서는 그녀와 첫 대면을 한다. 이 대면에 의해 건오는 도시에서 밀려난 낙도에서의 자신의 삶을 지양하고, 다시 한번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을 간직하게 된다. 그러나 이 희망은 그녀의 어두운 표정에 의해 가물거리게 된다.

“항주라예? 덕산 등산 가십니까?”

“아니오, 교편 잡으려 갑니다, 거기 중학교예.”

“항주중학에예?”

그녀는 흠칫 놀랐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코끝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지만, 그녀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다. 그녀가 갑자기 침울해지자 그의 기분도 울적해졌다.(중략)

“가시면 교감 선생님에게 안부나 전해주실랍니까.”

그녀가 그를 돌아보고 말했다. 그가 아마 그러겠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 거렸다. 그러자 그녀는 문득 얼굴을 부수고 눈부신 웃음을 살짝 보여주었다.((산), 221-223)

위의 예문에는 그녀가 어두운 표정을 짓게 된 이유가 암시되어 있다. “가시면 교감 선생님에게 안부나 전해주실랍니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교감은 그녀의 삶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려 존재론적 욕구를 좌절시킨 존재이다. 이 존재가 준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에 그녀는 전오라는 새로운 타자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가 덧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는 인간 존재에게 비극적인 특정 사건이 준 정신적 트라우마는 시간의 경과에 의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가 생을 계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증식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그 증식은 특정 장소나 특정 인물, 특정 행위 등을 통해 지속된다.²³⁾ 위 예문의 그녀도 ‘항주 중학교’라는 특정 장소가 주는 기억의 재생에 의해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비극적인 삶의 가운데에 있다.

한편 전오도 낙도에서의 교원 생활을 즐거움이 아닌 쓰라림으로, 삶의 패배로 간주하면서 자책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그보다 팔자가 조금 더 좋은 그의 대학 같은 과 동창들”이 모처럼 찾아와도 즐겁거커녕, 오히려 쓰라림만 느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가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타자가 필요한데, 그 타자는 흥현에서 헤어진 그녀이다.

23) 이는,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 하에서, 미군의 공습에 의해 방공호에서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방공호의 관리원이 된 후, 끊임없이 그 아들의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오키 마리, 김병구 옮김(2005), 『기억·서사』, 소명출판.)

그는 무심코 고개를 돌리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서로를 알아보았다. 그는 지난 한 달 동안의 회오리바람이 한꺼번에 소용돌이치는 듯한 한 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의 나타남은 그가 상상했던 것만큼 감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출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또 그 출현의 방법을 얼마나 많이 수정했는지도 모른다. (중략) 그들은 다행히도 눈이 부딪히자마자 말문을 터버렸으므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먼저 알아보고 저쪽이 자기를 알아볼 때까지 자의식에 가득 찬, 그래서 때로는 결코 바라지 않은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어색한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은 나란히 모래 위에 앉았다.

(《산》, 230-231)

위의 예문은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건오가 ‘쓰라리다’는 의식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감격과 희열, 즉 존재론적 욕구 충족의 느낌을 조금이나마 느끼는 부분이다. 이는 건오가 자신과 비슷한 존재인 그녀와의 동질의식과 트라우마의 말없는 교류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동질의식과 트라우마의 말없는 교류에 의해 건오는 그녀와 “눈이 부딪히자마자 말문을 터버릴” 수 있었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타자로 여기면서 삶의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껴안아주는 상호공정의 태도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점식을 먹고 산꼭대기에서 헤어졌다. 그가 같이 내려가자고 했지만 그녀는 동네 사람이 산 위에서 노점을 하는데 거기도 한번 가보아야겠다고 그리고 반대편 기슭으로 내려가면 그녀의 동네가 더 빨리 나온다고 말하면서 한사코 그러러 먼저 내려가라고 했다.

그가 무언지 조금 안된 기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와 헤어졌다. 그리고 혼자서 산을 내려왔다. 가파른 길을 내려올 때는 그녀의 축축한 손의 감촉이 생각났지만, 중턱쯤 와서 길의 경사가 완만해지자, 그리고 두고 온 그녀와의 거리가 차츰 멀어지자, 맨 처음 얼핏 들었던 이상한 느낌이 자꾸만 고개를 들고 일어났다. 돌아서서 다시 올라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하느라고 천천히 발걸음을 떼었지만 결국은 산 아래에까지 내려오고 말았다. 산길과 큰길이 갈라지는 산 아래 산의 입구에 딱 도착하자 그는 그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이 올라갔으니 같이 내려와야 할 것이 아니냐.(<<산>, 236-237쪽)

위의 예문은 그녀를 산에 혼자 두고 오면서 건오가 느끼는 불안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건오가 느끼는 불안의식은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타자였던 그녀의 트라우마를 끝까지 감싸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오에게서 본질적으로 위로받지 못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녀가 건오에게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본질적으로 위로받지 못한 것은 건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건오를 배려하려는 그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로 인해 건오의 앞날이 방해받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자신의 트라우마를 자신이 끝까지 안고 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녀는 밝은 길이 아닌 어두운 길(자살로 추정되는 길)을 선택하면서, 건오에게 밝은 길을 터주는 희생의 시간을 선택했다. 그녀의 이러한 선택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동질적인 아픔을 안고 있는 타자에 대한 애정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교육의 내용

지금까지 연구자는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두어, 타자의 서사적 기능이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논의한 다음, 이러한 것들을 학습독자가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교육의 내용을 논의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내용은 텍스트, 학습자, 상황맥락 등과 같은 교육 내용 선정의 변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텍스트의 유형이나 난이도, 학습자의 학습능력이나 학습태도 등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교육이 수행되는 상황맥락이 어떠한가, 즉 학습상황이 개인적인 차원인가

아니면 사회·문화적 차원인가에 따라서도 교육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텍스트와 학습자의 능력(서사 텍스트 읽기 능력)에만 초점을 두어,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타자의 서사적 기능을 읽기 위한 서사교육의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텍스트를 서사 텍스트로 한정하여,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를 학습독자가 실제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학습독자가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를 삶과 관련지어 이해하는 과정은 ‘삶의 현상 이해’ 차원, ‘자기 성찰’ 차원, ‘새로운 삶에 대한 비전 마련’ 차원 등으로 나뉠 수 있음은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하여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안될 수 있을 것이다. (1)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안다. (2)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삶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안다. (3)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실제 삶에 대한 성찰과 연관지을 수 있다. (4) 소설 텍스트에 형상화된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의해 세계, 타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교육의 내용들은 서사 텍스트에서 타자가 특정 인물에게 하는 서사적 기능을 학습독자가 삶의 현상과 관련지어 읽는 과정에 따라 구안된 것인데, 각 내용의 의미를 서정인의 〈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안다.

서사 텍스트에서 한 인물은 다른 인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한 인물은 타자를 자신의 관점이나 세계 속에 포섭하는 것이 아닌, 상호 동등한 관계 속에 타자의 시선이 갖는 잉여성에 의해 자신의 존재성을 인식하고, 이에 의해 타자,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정인의 〈산〉을 통해,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산〉에서 건오와 그녀의 본격적인 만남은 그녀가 항주 중학교에 찾아온 때부터이다. 항주 중학교에 찾아온 그녀와의 만남을 통해 건오는 그녀가 자신처럼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녀를 통해 삶에 대한 위로를 받는다. 이는 건오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이 그녀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텍스트의 의미화도 건오와 그녀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소설에 형상화된 건오의 의식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독자는 우선적으로 그녀와 건오의 타자적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녀와 문선생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고, 그녀와 건오가 서로의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소설은 건오와 그녀가 서로를 통해 이루는 존재론적 욕구 충족에 의해 그 의미역이 생겨남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삶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안다.

소설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학습독자로 하여금 타자와 세계에 대한 확장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통해 학습독자는 삶의 다층성을 이해하면서, 이에 의해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필수적으로 타자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실제 삶이란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에 의해 수행됨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산〉에서 그녀가 하는 서사적 기능은 건오가 삶의 지향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삶에 대한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서사적 기능은 〈산〉의 전체적 의미를 형성하면서, ‘타자에 대한 배려’라는 삶의 구성 원리를 암시한다. 따라서 학습독자는 건오와 그녀의 타자적 관계를 이해하고, 그녀가 건오에게 미치는 서사적 기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그들의 타자적 관계가 다층적인 실제 삶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실제 삶에 대한 성찰과

연관지을 수 있다.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에 의해 실제 삶의 다층성을 이해하는 가운데, 학습독자는 상상력을 발휘해 실제 삶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된다. 허구적 삶의 다층성에 대한 이해는 실제 삶의 다층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실제 삶에 대한 성찰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를 <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산>의 주요 테마는 ‘타자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테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는 인간이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에 의해 세계와 삶, 타자의 의미를 이해하고 삶에 대한 성찰을 가능하게 한다. 타자에 대한 배려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위와 의식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을 읽을 때, 학습독자는 ‘타자에 대한 배려’라는 인간의 존재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연관지을 필요가 있다.

(4) 소설 텍스트에 형상화된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에 의해 세계, 타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

소설 텍스트에 형상화된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이해에 의해 학습독자는 실제 삶, 세계, 타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이는 인식적 상상력과 조응적 상상력에 의해 학습독자가 실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이 인식에 의해 학습독자는 자신이 꿈꾸는 유토피아를 갈망하고, 이 갈망을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초월적 상상력에 의해 모색한다. 이를 <산>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산>에 형상화된 건오와 그녀의 타자적 관계는 학습독자로 하여금 실제 삶에 대한 이해를 간접경험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자를 배제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와의 진정한 교호작용, 타자의 트라우마를 꺼안은 존재론적 욕구 충족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학습독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V. 결 론

현대 철학의 타자 논의는 주체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인간에 대한 새롭고도 심화된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논의는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에 대한 이해에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사 텍스트에 형상화된 작중인물들을 특정 인물 중심으로 논의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물간의 얽힘을 ‘타자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풀어냄으로써, 인물간의 관계망과 그 서사적 기능 및 의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학습독자가 작중인물간의 심리적/정서적/이념적/공간적 제 국면의 결속관계를 구조적이고 심층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여, 다층적인 삶의 현상을 이해하고 자기 성찰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학습독자가 갖는 이러한 안목과 힘은 서사교육의 장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서사 텍스트에 대한 보다 확장되고 심화된 이해를 도모하는 서사교육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서정인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자의 서사적 기능을 타자성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이러한 타자의 서사적 기능을 강조하는 서사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교육의 내용들로는 (1)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안다. (2)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삶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안다. (3)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실제 삶에 대한 성찰과 연관지을 수 있다. (4)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 읽기를 통해 세계, 타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 등이다.

이러한 서사교육의 내용들은 서사 텍스트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사적 행위자인 작중인물이며, 작중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특정 인물이 자신의 존재론적 욕구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또한 작중인물들의 다층적 삶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학습독자가 세계와 삶을 성찰하고 새로이 도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전제한 것이다. 서사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의미 있게 수용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작중 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본 논문은 2006. 6. 20. 투고되었으며, 2006. 7.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6. 7. 29.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고영아(1997), 「철학적 인간학의 관점에서 본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타자성의 윤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1976), 「세계 인식의 변모와 의미」, 서정인(1997), 『강』, 문학과지성사.
- 롤랑 부르뇌프·레알 웰레, 김화영 편역(1996), 『현대소설론』, 현대문학사.
- 문기호(2000), 「타자성의 미학적 의의에 관한 연구: 아도르노의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바흐친, 「심미적 행위에 있어서 작가와 주인공」, 김옥동 편(1990),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 서정인(1996), 『강』, 문학과지성사.
- 선주원(2002), 「상상력 형성을 위한 이해와 표현으로서의 소설교육」,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교육학』제10호, 역락.
- 선주원(2003), 「타자성의 관점에 의한 소설교육」,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국어문교육』제12집.
- 오키 마리, 김병구 옮김(2005), 『기억·서사』, 소명출판.
- 우찬제(1998),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의미 연구: 염상섭의 《삼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제8집.
- 윤혜경(1999), 「서정인 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득재(1996), 「차이와 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경순(2003), 『국어교육학과 서사교육론』, 한국문화사.
- E. Husserl, 이종훈 역(1993), 『데카르트적 성찰』, 철학과현실사.
- F. Jameson(1981),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Cornell University Press.

<초록>

‘타자’의 서사적 기능과 서사교육의 내용

선주원

이 글은 서정인의 소설들을 대상으로 하여, 타자의 존재 의미와 서사적 기능을 살펴본 다음,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구안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초점을 둔 서사교육의 내용들로는 (1) 특정 인물의 존재론적 욕구 충족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안다. (2)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실제 삶의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을 안다. (3) 작중인물간의 타자적 관계에 대한 이해를 실제 삶에 대한 성찰과 연관지을 수 있다. (4) 타자의 서사적 기능에 의해 세계, 타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비전을 마련할 수 있다. 등이다.

이러한 서사교육의 내용들은 서사 텍스트 이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작중 인물이며, 작중인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특정 인물이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핵심어】 타자의 존재 의미, 타자의 서사적 기능, 존재론적 욕구, 학습독자, 서사교육의 내용, 학습독자의 성찰

<Abstract>

The Narrative Function of 'the other' and the Content of
Narrative Teaching

Seon, Ju-won

This paper examined how are meaning for a being and narrative function of the other, how the content of narrative teaching focused narrative function of the other are established, making Seo Jung In's novels into an object text.

As a result of examination, contents of narrative teaching focused reading narrative function of the other are (1) know that sufficiency of ontological desire of the character is formed in the relation with the other. (2) Know that the recognition other-relation between characters helps understanding about phenomenon of the real life. (3) could connect the understanding other-relation between characters to reflecting about real life. (4) Promotes understanding about the world, life by the narrative function of the other, prepare the vision about new self life.

These contents of narrative teaching have grounding that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understanding of narrative text is the character, the correct understanding about this character is started in the correct comprehension about relation with other character.

【Key words】 the meaning for a being of the other, narrative function of the other, ontological desire, learning reader, the content of narrative teaching, the student-reader's reflecting